아스라한 추억 위에 쌓아 올린 '개발의 바벨탑'

백운포 고개에서 내려다 본 1985년(위 사진, 전 남구청 공무원 김맹중씨 촬영)과 2023년(아래 사진, 강정흔 주무관 드론 촬영) 용호동의 달라진 풍경.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1980년대 남구와 2023년 남구의 달라진 모습과 풍경을 사진과 스토리를 살펴보는 '응답하라 남구의 1980!'을 연재합니다.

응답하라, 남구의 1980! 1 용호동의 상전벽해

용호동은 남구의 동남단에 반도(半島)형 지형을 이루고 있다. 동편은 장산봉(장자산)이 방풍과 방파를 책임지고, 서편은 비룡산과 용마산이 높은 담장처럼 가로막고 있으며, 남쪽에 우뚝한 백운포 고개까지 어울려 마치 시가지를 성곽처럼 감싸고 도는 천혜의 주거 환경을 갖춘 곳이다.

용호동은 우리 전통 농어촌처럼 씨족 자연부락이 3~4개 형성된 전형적인 시골 모습으로 존재해 왔고, 6·25동란 이후 부산의 급격한 팽창에도 나환자(한센병)촌과 변두리라는 치명적 약점 때문인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1972년부터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초량동, 수정동 산동네 철거민 정책이주와 궤를 같이하여 신흥 주택지로 변모가 시작된다.

필자의 기억에 용호동은 80년대 초까지도 동네를 관통하는 도랑에서 빨래를 하고, 도랑가에는 예쁜 코스모스가 피었던 모습이 아련하다. 도랑 옆 좁다란 도로를 따라 옹기종기 정겹게 들어선 집 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군데군데 우뚝 선 목욕탕과 공장 굴뚝이 높이를 뽐내던 모습이 사진처럼 어렴풋하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운포 고개를 넘으면 그 시절 용호농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센병자 집단 거주로 인한 혐오감이 무척 심했다. 1995년쯤 필자가 처음 그 농장을 갔을 때가 기억난다. 명승지인 '오륙도' 현장 확인을 위해 하는 수 없이 농장 사무실을 찾았었다.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그들의 통통배로 비석섬(수리섬)에 상륙하여 일을 마치고 무사히 되돌아왔다. 때마침 부둣가에 해녀들이 잡은 문어, 해삼, 소라 같은 어물 난전이 섰다. 용기를 내 싱싱한 문어를 사 들고 난전 앞 상점에서 삶아 먹었다. 한센병 환자도 알고 보면 용호동의 다정한 이웃이란 사실을 그날 새삼 깨우쳤다.

그러던 용호동이 이제는 시야를 온통 가린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 우후죽순 키재기에 몰두하고 있고 차량들로 홍수를 이룬다. 상전벽해,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는 데 불과 30~40년이면 족한데 우리는 그 동안 어디서 무얼 했던가.

권채영 작가·남구청 퇴직 공무원

1985년 바다에서 바라본 오륙도 인근 용호마을 모습(김맹중씨 촬영).